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보고

성찬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사순절 셋째 주일 / 성찬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김원재목사

샤마임찬양대

설교자

다같이

인도자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신앙고백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보오니(찬 228)

특송(김은희자매) - 내가 주님을

결단의 기도

갈보리 산 위에(찬 150)

합심기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찬 151)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3:32-41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쁜 소식이 어떻게 들리는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찬 339)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자와 영상 예배자가 모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 나가실 때, 손소독제를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협 찬조)
4. 오늘 예배 후 친교실에서 이사준비팀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에 교회물품이 있는 분들은 이사준비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최준용)
5. 다음 주일 3월 14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한시간 일찍 준비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다니엘 금식기도가 3월 28일(주일) 부터 4월 3일(토) 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지가 배부될 것입니다.
7. 3/29(월)~4/3(토)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목금토 3일은 현장기도회와 비대면기도회를 병행합니다. 참석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8. 한울림교회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일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되어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월에는

지난 주 칼럼에서 안내를 해드렸듯이 3월부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여섯 분을 순서대로 이 달의 선교사로 정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3월의 선교사는 네팔의 김광성 선교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한 선교보고를 보시겠지만, 부탁한 기도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아학교 복음화 사역을 위하여
2. 크리파교회와 머히마(소망)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3. 크리스찬 스쿨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나오도록
4. 선교의 발판이 되는 한국어학원의 운영을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각각의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은 주일예배 시에 특별히 네팔과 김광성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울림 성도들은 기억하시며 개인 기도 시간이나 식사 기도 시간에도 기억하시며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3월은 봄이 찾아오는 시간이자,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3월의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다니엘금식기도” 신청자를 받아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기간도 일주일(3.28~4.3)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가 참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당 입당을 기다리는 3월입니다. 예배당 건축 공정은 거의 마쳤는데,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곧 입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하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도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모임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기에 코로나가 물러가면 열심히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부터 우리 자신이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간 코로나를 핑계로 무심코 지냈던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3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